

편 집 후 기

현대 사회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변화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발상을 전환하여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마음의 여백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학회의 40년사를 편찬한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1961년 부터의 학회역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회에서 오랫동안 회장을 맡아오셨던 전중휘, 정희영 교수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만들지 못하면 많은 자료들이 사장될 우려도 있어 다행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창립 총회부터의 기록이 감염학회 창간호와 이후에 거의 모두 기록되어 있어 다른 학회사보다 초창기의 모습을 자세히 편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두 회장님들의 꼼꼼하고 앞을 내다보시는 혜안에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집니다. 특히 학회 창립과 학회지 발간 및 초창기 모습에 대해서는 편찬위원회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고 정희영 교수님이 주신 원고를 그대로 인용하여 당시의 어려웠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중휘 교수님의 ‘우리시대 전염병에 관련되었던 나의 움직임의 이모저모’는 정사에 곁들인 야사로 색다른 흥미를 전하여 줍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과거의 많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정리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자료의 누락 및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도 10년 후에 학회사 작업이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발간된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의 감염에 관련된 교실사를 추가하여 더욱 충실한 50년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학회사가 발간되기까지 소중한 역사 자료를 보내주신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료를 정리하여 약술하고 교정하느라 고생하신 편찬위원 모든 분들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01년 11월

대한감염학회 40년사 편찬위원들의 뜻을 모아

신 완 식

2001년 11월 15일 인쇄

2001년 11월 23일 발행

발행처 : 대한감염학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 오피스텔 1909호

전화 : 02)2055-1441

팩스 : 02)2055-1442

E-mail : ksinfect@kornet.net

대한감염학회 40년사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
: Its first 40 yeasars (1961~2001)

발행인 : 강문원

편집인 : 신완식

편집위원 : 강진한·김양리·김우주·김준명

송영구·오명돈·우준희·정희진

인쇄인 : 최용준

인쇄처 : 광문출판사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72-17 305호

전화 : 02)2285-0895, 6
